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pp. 355~361

서평

트럼프의 참모들, 그들은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할까?

정욱식*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New York: Simon & Schuste, 2020.

H.R 맥매스터 저, 우진하 옮김, 『배틀그라운드: 끝나지 않은 전쟁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 (파주: 교유서가: 교유당, 2022)

Mike Pompeo, 『The 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 New York: Broadside Books, 2023.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열띤 '대화의 시즌'이 최장기 '대화 부재'를 낳고 말았다.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톱 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허망한 결과를 낳으면서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회담도 사라진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남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5월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이다. 북미대화 역시 2019년 10월 실무회담 이후 굳게 문이 닫혀 있다. 이 역시 1990년대 초반 이래 최장기간이다. 한미가 대화를 제의해도 북한이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화가 사라진

*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한반도에선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군사협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전쟁 위기와 평화 사이를 오고간 것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이 지나면서 '게임의 법칙'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30년 가까이 핵개발을 '수단'으로 삼아 평화체제와 북미수교, 그리고 제재 해결을 추구했던 북한은 2018~2019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황망한 결과만 낳았다고 판단하곤 핵무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은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말하지만, 이를 위한 과감한 제안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과감한 조치도 마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희망의 근거는 아예 사라진 것일까? 낙담에 앞서 2018~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한 배경과 원인부터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도 나왔고, 또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도 나왔다. 이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최측근들의 회고록이다. 존 볼턴의 책(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New York: Simon & Schuste, 2020))이 2020년 6월에,[1] 맥매스터의 책(『배틀그라운드: 끝나지 않은 전쟁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 (파주: 교유서가: 교유당, 2022))이 영어책 기준으로 2020년 9월에,[2]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의 책(Mike Pompeo, 『The 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한 치도 양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싸우다)』 (New York: Broadside Books, 2023))은 2023년 1월에 각각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맥매스터의 회고록은 2022년 1월에 ㈜교유당의 번역 출판으로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맥매스터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인 2017년 2월 20일에 마이클 플린

1 이 책의 국문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존 볼턴 저, 김동규 옮김, 『그 일이 일어난 방』 (서울: 시사저널사, 2020).

2 이 책의 영어 원본은 다음과 같다. H. R. McMaster, 『Battlegrounds: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 (Harper, 2020).

의 사임으로 갑작스럽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3개월 후인 2018년 3월 하순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인물이다. 트럼프가 그를 경질시킨 배경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전언이 있다. 그의 후임자인 존 볼턴은 2000년대 초중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네오콘'의 일원으로 2019년 9월에 경질되었다. 트럼프가 그를 경질한 배경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그 이후 볼턴은 트럼프의 저격수를 자임해왔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맡았다가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본격화된 2018년 4월부터는 미국 외교의 사령탑인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그는 북미회담의 실무총괄을 맡았다.

회고록은 '자기중심성'을 피하기 어렵다.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협상의 성패 및 이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관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상관과 마찰을 겪고 해임된 경우에는 개인적인 앙심까지 회고록에 담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회고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과 당시 정세에 대한 객관적·종합적인 이해를 병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까닭이다. 본 글은 트럼프의 세 측근이 진단한 북미 협상의 실패 원인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필자의 비판적인 생각을 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2019년 여름 상황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톱 다운' 방식의 대미·대남 협상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이 60시간 넘게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가 '빈손'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진단이 지나치지는 않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이 전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4개월 뒤인 6월 30일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번개팅'이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 '하노이 노딜'보다 결정적이었다. 하노이 노딜이 김정은 정권에게 '충격'이었다면,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은 김정은 정권에게 또 다른 '결심'의 배경으로 작용했기에 그렇다. 여기서 결심이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미련을 사실상 접고 핵무력을 정치·안보·경제·외교를 아우르는 '국체(國體)'로 삼기로 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이전의 북한과 이후의 북한이 확연히 달라진 것일까?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는 2019년 6월 초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는 "타협이 아직 가능하다는 우리의 희망을 띄우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친서에는 "우리 사이의 심오하고 특별한 우정은 (중략) 북미관계의 진전을 이끌 마법과도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마주 앉을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노이 충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타진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트위터로 김정은과의 비무장지대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정은은 북미실무회담에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 직후 트럼프가 "적(enemy)"라고 부른 〈뉴욕타임즈〉의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다. 요지는 "판문점 회동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새로운 협상의 기초를 창출할 수 있는 진지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핵동결이 그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는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핵 동결 아이디어는 "트럼프가 '재앙'이라고 비난했던 이란 핵협정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평했다.

판문점 회동에서 배제되었던 볼턴은 이 보도를 주목했다. 그는 회고록에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거절해서 묻혀진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살아났다"고 썼다. 또 "나를 포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어떤 사람도 '북핵 동결 추구'를 검토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누군가 꾸민 괘씸한 시도이다. 여기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볼턴은 북핵 동결 아이디어를 낸 사람으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의심했고 그를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키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폼페이오에게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우파로부터의 공개적인 공격"을 걱정한 폼페이오는 비건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NSC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볼턴에 따르면, 북한은 실무회담을 8월로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측 실무회담 대표가 대북정책 라인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판문점 회동 결과의 한축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셈이다.

또 하나의 축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이 축은 어떻게 무너진 것일까? 6월 30일 회동 이후에도 한미 양국은 8월로 예정되었던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연기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7월 24일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미군

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통령인 트럼프의 약속을 참모가 뒤집은 것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은 긴장된 마음으로 트럼프에게 보고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을 실시하기로 한국측과 합의했다는 보고에 대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였다고 첨언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판문점 회동의 두 축이 무너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참모들은 '세기의 담판'이라고 큰 관심을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우선 볼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였고, 그 임무에 성공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해왔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좌초되면서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약속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제재 완화 가운데 어느 것도 지켜진 것이 없었고, 볼턴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맥매스터의 평가는 어떨까? 그는 애초부터 북미정상회담에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최대의 압박이 시작 단계에 불과"했는데, 북미정상회담으로 압박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썼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고 무조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북한 관료들과의 상향식의 길게 늘어지는 협상을 벌이는 건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정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 지점에서 찾았다. 특히 그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성과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여기고는 "이미 쓸모가 없어진 영변 핵시설의 보여주기식 철거만으로 제재 조치를 철회하려 할 만큼 입지가 악화되어 있다고 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능력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경제적 혜택이 주는 위력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독재자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맥매스터의 주장처럼, 김정은과 트럼프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정작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는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

다. 또 그가 말한 협상 당사자들이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지면,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를 갖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가 영변 핵시설을 가리켜 “이미 쓸모가” 없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에도 북한 핵물질 생산의 중심지는 영변이기 때문이다.

볼턴과 맥매스터가 북미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한 반면에, 폼페이오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원한 것을 얻지는 못했다”면서도 2018년 6월 첫 만남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북한이 최대의 국가안보상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는 꽤나 좋은 결과였다”고 썼다. 비핵화라는 “완전한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이 환영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이러한 성과가 “우리가 나타내기(showing up)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간절히 원했던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개인적인 유대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성과라고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낳게 한다. 미국에게 북핵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온 핵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측면과 함께, 미국이 ‘북한위협론’을 활용해 자신의 군사적·전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또 하나의 측면을 품고 있다. 실제로 역대 미국 행정부는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중지 약속을 받고는 최대 관심사를 비핵화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옮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핵 ‘제한’에도 실패했다. 2020년 이후 북한의 핵 고도화는 반세기 전의 중국에 이어 처음으로 미국 본토까지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맥매스터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북한의 김정은을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로 부르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권위주의적인 경쟁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전략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본문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양국 사이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놀랍게도 이

러한 주문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또 하나. '트럼프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는 두 사람의 건곤일척의 승부가 또 다시 벌어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고 대미 관계에 흥미를 잃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낮다.

반면 트럼프가 또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 트럼프 1기 때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복기하면서 그의 재등장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기회이든, 위기이든, 트럼프 변수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글로벌 지정학에도 일대 파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